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적용학습 현대시 01강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6)	김소월	1
적용학습 현대시 01강	함주시초5(0)	백석	-
적용학습 현대시 02강	님의 침묵(7)	한용운	4
적용학습 현대시 02강	모란이 피기까지는(6)	김영랑	7
적용학습 현대시 03강	황혼(9)	이육사	9
적용학습 현대시 03강	쉽게 씌어진 시(6)	윤동주	12
적용학습 현대시 04강	낙화(6)	조지훈	15
적용학습 현대시 04강	플라타너스(6)	김현승	17
적용학습 현대시 05강	도봉(6)	박두진	19
적용학습 현대시 05강	그리운 그 사람(0)	김용택	-
적용학습 현대시 06강	향아(6)	신동엽	22
적용학습 현대시 06강	폐가에 부쳐(0)	김관식	-
적용학습 현대시 07강	성북동 비둘기(8)	김광섭	26
적용학습 현대시 07강	길(7)	신경림	30
적용학습 현대시 08강	누룩(7)	이성부	33
적용학습 현대시 08강	얼은 강을 건너며(0)	정희성	-
적용학습 현대시 09강	안개의 나라(3)	김광규	36
적용학습 현대시 09강	바다와 나비(6)	김기림	37
적용학습 현대시 10강	참깨를 털면서(6)	김준태	40
적용학습 현대시 10강	배를 매며(6)	장석남	43
적용학습 현대시 11강	이별 이후(2)	문정희	45
적용학습 현대시 11강	강변역에서(0)	정호승	-
적용학습 현대시 12강	파발 가에서(9)	김수영	46
적용학습 현대시 12강	별을 굶다(6)	김혜순	50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고3 3월 B형 / 해설 1쪽)

(가)

나는 ㉠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 떠 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 보습: 땅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의 일종.

\* 산경: 산에 있는 경작지.

(나)

「너 들어 보았니  
[A] 저 동구밖 느티나무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B]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C]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D]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E]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리겠니

-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

\* 우듬지: 나무줄기 꼭대기.

\* 면면함: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 있음.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②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 ④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 ③ ㉢: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가 나타난다.
- ④ ㉣: 유망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⑤ ㉤: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놓고 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상처를 회복하며 생명을 이어가듯 농촌 역시 생명력과 공동체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생(生)의 의미로 확장되어, 면면히 ‘겨울’을 이겨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제목인 ‘면면함’은 이 시의 주제를 함축한다.

- ① [B], [D]의 상황 대조를 통해 ‘푸르른 울음소리’의 정체가 시련을 딛고 뿔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임을 ‘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②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군.
- ③ [D], [E]를 통해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낸 ‘오늘’의 ‘나무’를 ‘쳐다보’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E]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을 주고 있음을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⑤ [A]~[E]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동일시됨으로써,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알 수 있군.

[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파이널 모의고사 B형 / 해설 1~2쪽)

(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으라**,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저 혼자...산경(山耕)을 김매이는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나)

우리는 지금 달리는 열차 속에 앉아 있는 거다.  
 망망한 바다가 보이는 도시에 닿기 위하여  
 검붉은 장미가 뒤덮은 공동묘지를 지나고 있는 거다.  
 차 안은 휘황한 불빛, 더러는 열면 토론을 하고,  
 더러는 곤한 잠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달콤한 사랑에 취해서.

㉣아니, 우리는 지금 어느 산역에 버려져 있는 거다.  
 요기를 위해 내려 잠시 한눈과는 사이 열차가 떠나  
 노숙자들이 우글거리는 대합실 한구석에서  
 좀체 오지 않는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더러는 불안과 초조로 잠을 설치고, 또 더러는  
 술과 도박으로 어둠을 잊으면서.

아니,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리기에 **도** 지쳐 마침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열차를 만들 꿈을 키우고** 있는 거다.  
 스스로들 열차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태우고  
**바닷가 도시를 지나 더 멀리 달려갈,**  
 아예 하늘로 날아올라 전갈자리 폐가수스자리까지 갈  
**힘차고 아름다운 열차를 만들 꿈을 키우고** 있는 거다.  
 -신경림, 「아름다운 열차」

4.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향가는 창작과 향유, 전승이 모두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이원적 경로로 이루어졌다.
- ② 고려 속요는 대체로 민요로 출발하여 궁중으로 전파되어 간 구비 문학 갈래이다.
- ③ 고려 속요의 우리말 가사는 고려 시대 때 암송과 기억에 의존하여 향유되었다.
- ④ ‘시가’라는 용어에는 구비 문학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 ⑤ 조선 시대의 시조는 구비 문학적 특성을 이어받은 갈래이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② ㉡: 영탄적 어조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화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이상이 아득하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앞부분에서 이어 온 시상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 열차를 기다리는 이들의 정서와 행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와 (나)에는 역사(歷史)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가)에 제시되어 있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현실에서 화자는 유랑자 신세이다. 그러나 화자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열차는 역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열차의 목적지는 ‘역사적 지향점’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역사적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시적인 만족감으로 인해 그 꿈을 잊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 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미래의 역사는 우리의 외부에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서로의 도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 ① (가)에서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집 잃은 내 몸이여’, ‘이처럼 떠돌으랴’,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라는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유랑자 신세임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열차를 기다리기에다 지쳐’ ‘새로운 열차를 만들 꿈을 키우’는 것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도래하는 미래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바닷가 도시를 지나 더 멀리’, ‘하늘로 날아올라’ 화자가 가려고 하는 ‘전갈자리 폐가수스자리’는 역사적 지향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를 통해 작은 희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태우’는 ‘힘차고 아름다운 열차를 만’드는 것을 통해 미래의 역사는 서로의 도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정답 및 해설

## • 적용학습 현대시 •

###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②	5	⑤
6	③	7	②	8	③	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②	18	③	19	①	20	②
21	③	22	③	23	④	24	③	25	⑤
26	④	27	③	28	④	29	④	30	②
31	②	32	③	33	④	34	④	35	⑤
36	③	37	⑤	38	②	39	①	40	⑤
41	①	42	④	43	③	44	①	45	⑤
46	④	47	⑤	48	①	49	⑤	50	③
51	⑤	52	①	53	②	54	⑤	55	⑤
56	④	57	②	58	④	59	②	60	④
61	④	62	④	63	⑤	64	④	65	③
66	⑤	67	③	68	①	69	④	70	③
71	④	72	⑤	73	④	74	⑤	75	②
76	③	77	⑤	78	⑤	79	④	80	②
81	③	82	⑤	83	②	84	③	85	①
86	③	87	④	88	③	89	⑤	90	⑤
91	②	92	③	93	④	94	⑤	95	④
96	④	97	①	98	③	99	⑤	100	⑤
101	④	102	④	103	⑤	104	②	105	③
106	③	107	①	108	③	109	④	110	①
111	④	112	⑤	113	①	114	④	115	④
116	①	117	④	118	④				

### 해설

####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는 ‘나는 동무들과 내가~꿈을 꾸었노라’에서, (나)는 ‘너~소리 들어 보았니’에서 각각 목적어와 서술어를 도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 2.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떠들으랴’는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꿈’에는 동무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꾸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② ‘집’의 상실과 ‘땅’의 부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집 잃은’을 통해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떠들으랴’와 함께 유랑의 삶을 사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드러난다.  
 ⑤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C]의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은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농촌의 모습이다. ‘나무’의 아픔은 곧 ‘마을(사람들)’의 아픔이다. ‘나무’의 호느낌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를 통해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읽어 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상처투성이’의 ‘겨울’ 나무와 [D]의 겨울을 이겨낸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나무가 대조적 상황을 보여준다.  
 ③ [D],[E]에는 시련을 이겨낸 ‘나무’의 의연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엿보인다.  
 ④ [E]에서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1연에서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은 ‘나는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꿈꾸었노라.’라는 문장이 도치된 것이고, (나)의 1연에서 ‘우리는 지금 달리는 열차 속에 앉아 있는 거다. / 망망한 바다가 보이는 도시에 닿기 위하여’는 ‘우리는 지금 망망한 바다가 보이는 도시에 닿기 위하여 달리는 열차 속에 앉아 있는 거다.’라는 문장이 도치된 것이다. 이렇게 도치법을 사용함으로써

(가)는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소망을, (나)는 역사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우리는 지금 ~ 있는 거다.’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 쓰이지 않았다.
- ③ (가)에 쓰인 ‘-노라’는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그러나 (나)에는 예스러운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품은 표현을 가리킨다. (가)와 (나)에는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어떤 단어 또는 문장의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속에 담긴 의미가 다를 때 이를 반어적 표현이라 한다. 작가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기법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가)와 (나)에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이들의 정서가 ‘불안과 초조’라는 시어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행위 또한 ‘술과 도박’이라는 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1연을 ‘즐거이, 꿈 가운데.’와 같이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는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는 느낌을 드러내는 어조인데, (가)의 화자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이라고 하며 영탄적 어조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집을 잃고 동으로, 남북으로 떠돌아다니는 상황으로 인해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개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이 ㉠과 같이 아득하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1연의 ‘우리는 지금 달리는 열차 속에 앉아 있는 거다.’라는 시상을 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열차를 기다리기에다 지쳐’ ‘새로운 열차를 만들 꿈을 키우’는 것은 외부에서 도래하는 ‘역사’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가)에 제시되어 있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은 화자의 꿈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개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보기>의 ‘현실에서 화자는 유랑자 신세이다.’라는 내용과 ‘집 잃은 내 몸이여’, ‘이처럼떠돌으랴’,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라는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유랑자 신세를 알 수 있다.
- ④ <보기>의 ‘(나)에서 열차는 역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열차의 목적지는 ‘역사적 지향점’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내용을 통해 ‘바닷가 도시를 지나 더 멀리’, ‘하늘로 날아올라’ 화자가 가려고 하는 ‘전갈자리 폐가수스자리’는 역사적 지향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의 ‘(가)와 (나)에는 역사(歷史)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는 내용과 ‘화자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는 작은 희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